

농흉에 있어서 비데오 흉강경을 이용한 늑막박리 및 배농술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류한영 · 소동문 · 이철주 · 최 호

효과적인 항생제 치료의 발달로 농흉의 빈도는 감소추세에 있으며 그 병인도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농흉은 실질적인 유병률 및 사망률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 폐쇄성 흉관 삽관 및 항생제 투여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대개는 늑막 박피술과 같은 고식적 방법들로 해결되나 최근에는 기관지 늑막루와 같은 합병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흉강경을 이용하여 늑막을 박리하고 세척을하여 배농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교실에서는 초기의 농흉을 폐쇄성 흉관삽관술을 시행했을 때 여러개의 막을 형성하여 잘 배농되지 않을 경우, 흉강경을 이용하여 늑막을 박리하고 늑막강을 세척함으로써 폐의 팽창을 도모하여 좋은 성적을 얻었다. 비록 적은 예(Group A, n=4)의 경험으로 통계학적 의의는 없으나 고식적 늑막 박피술(Group b, n=6)과의 비교를 통해 그 의의를 조사해 보고자 하였다.

환자의 연령군은 두집단 모두 평균 40대(Group A=47, Group B=46)로 비슷하였고 성별은 Group A가 모두 남자였으나 Group B는 남·여 같은 비율이었다. 좌우측비는 Group B가 6례중 5례가 우측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주 증상은 두 집단 모두 흉통이 대부분이었으며 그 기간은 Group A가 15일, Group B가 평균 38일로 늑막박피술을 시행한 집단에서 술전 주증상이 2배이상 길었다. 그의 증상으로는 Group a가 기침, 열감, 호흡곤란순이었고, Group B가 운동시 호흡곤란, 기침, 두통의 순이었다. 과거력상 Group B에서만 결핵이 5례로 가장 많았고 Group a는 특이소견 없었으나 폐암이 동반된 예가 1례이었다. Group a의 경우 술전 늑막천자 및 폐쇄성 흉관삽관을 시행하였으나 배농이 잘 되지 않은 경우가 3례이었다. 술후 흉관거치일은 Group A가 평균 8일로 Group B 7일보다 1일 많았으며 술후 퇴원일도 Group A가 평균 13.5일로 Group B 11일 보다 많았다. 이것은 아마 늑막박리 및 세척으로 인해 늑막배농액이 Group A의 경우 지연배농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술후 진통제 투여횟수는 Group A가 평균 2회, Group B가 평균 2.6회로 두집단 간의 큰 차이는 없었으나 Group B의 경우 2례에서 경막외 도관설치로 통증치료가 예가 포함되어 있다.

두집단간에 술후 흉관 거치일 및 퇴원일 그리고 술후 진통제 투여 횟수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었으나 농흉의 초기단계에 폐쇄성 흉관삽관술로 배농이 잘 되지 않는 환자들에 있어서 초기치료의 방편으로 비데오 흉강경이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된다.